

조선·항공업계, 운임 최고가 행진... 임인년 역대급 실적 예고

국제적 물류대란... 적체현상 심화
SCFI 9주 연속 상승, 5100선 돌파
홍콩~북미 항공운임 코로나 이전 3배

바다에서 시작된 물류난이 하늘로도 이어지며 운임 상승세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물류난으로 해운과 항공의 운임 비용이 상승하면서 국내 해상과 항공업계의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2월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 운임은 지난해부터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물류대란으로 인한 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항만 인력 부족으로 물류 정상화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실제 글로벌 해운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7일 5109.6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지수는 9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이



HMM은 지난 8일 올해 첫 임시선박 'HMM홍콩호'를 출항했다

날 2009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SCFI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000포인트를 오르내리던 SCFI는 그해 11월 27일 2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이어 지난해 4월 30일 3000선, 7월 17일 4000선을 각각 넘어섰고, 지난달 31일에는 사상 최초로 5000선(5046.66포인트)도 돌파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9주 연속 상승한 SCFI는 전주 5000

선 돌파에 이어 5100선(5109.6포인트)마저 넘어선 상태다.

운임료 상승으로 국내 대표 해운사인 HMM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항만 내 병목현상으로 인해 선박이 제때 돌아오지 못해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항만 인력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운임비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바닷길이 막히면서 항공화물 운임도 사상 최고가를 갈



지난 1일 오전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근무자들이 수출 화물을 싣고 있다.

아치고 있다.

글로벌 항공화물 운송지수인 TAC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홍콩~북미 노선 운임은 1kg당 12.72달러를 기록했다. 2015년 1월부터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고가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1월(3.14달러)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올랐다.

홍콩(아시아)과 미국을 잇는 이 노선은 항공화물 물동량이 가장 많은 대표 노선이다. 홍콩~북미 월평균 운임은 지난해 ▲6월 7.89달러 ▲7월 7.90달러 ▲8월 8.64달러 ▲9월 9.74달러 ▲10월 9.

94달러 ▲11월 11.54달러 ▲12월 12.72달러 등 7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올해 1월에는 11.10달러로 내려 갔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상승했다. 홍콩~유럽과 프랑크푸르트~북미 등 다른 노선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해상물류 차질이 장기화됨에 따라 항공운송으로 전환되는 수요 증가와 여객기 벨리카고(Belly Cargo) 수급 불안이 항공운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매출액에서 화물사업부 비중이 70%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올해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12일 인천공항에 위치한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찾아 "최근 주요 항로에서 화물스페이스 부족 및 운임 급등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항공화물 긴급수출 물류 지원사업'을 연장한 것에 감사하다"며 "올해도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물류난을 헤쳐 갈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진그룹 2022년 정기 임원인사

'한진家 3세' 조현민 부사장, 사장 승진

경영환경 악화 타개 역량 집중
한진, 노삼석 사장 단독 대표체제로

한진그룹이 12일부로 지주회사 및 그룹 계열사에 대한 2022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 3세인 조현민(썬한진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한진그룹은 그동안 그룹 전반의 핵심 물류사업에 대한 경쟁력 및 재무건전성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폭 넓은 성과를 인정받은 류경표(썬한진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해 지주회사인 한진칼 사장으로 전보했다. 또한 이승범 대한항공 부사장을 한국공항 사장으로 승진 임명하고 박병률 대한항공 상무를 진에어 전무로, 권오준 대한항공 상무를 정석기업 전무로 각각 승진 임명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승진 임명에 따라 류경표 한진칼 사장, 이승범 한국공항 사장, 박병률 진에어 전무, 권오준 정석기업 전무를 각각 각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안교육 한진관광 상무



조현민 한진 사장

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한진그룹은 추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등 각사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들을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특히 한진그룹은 조현민(썬한진 부사장)과 노삼석(썬한진 부사장)을 각각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썬한진은 기존 노삼석 사장과 류경표 사장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노삼석 사장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가 된다.

이중 조현민 사장은 지난 2020년 한진칼 전무에서 한진 마케팅 총괄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그해 12월 부사장

으로 승진했고, 1년여 만에 사장으로 고승진했다.

조현민 사장은 내부적으로 썬한진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류사업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했고 업계 최초로 물류와 문화를 결합한 로지테인먼트(Logistics + Entertainment)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노삼석 사장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 후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신규 확보, 의약품 물류 서비스 기반 구축 등으로 제 2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국공항 유종석 전무와 진에어 최정호 전무는 각각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한편 이번 한진그룹 임원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된 경영환경 악화를 타개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양성운 기자

네이버 D2SF, '데이터라이즈' 후속 투자

네이버 D2SF가 2020년 시드 투자를 진행한 이커머스 데이터 스타트업 '데이터라이즈'에 후속 투자했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라이즈의 이번 시리즈A 투자 유치금은 총 115억원 상당으로, 스톤브릿지벤처스가 리드 투자했다. 위벤처스, 산업은행, 미래셋벤처투자도 공동 투자했다.

데이터라이즈는 온라인 쇼핑물 성장을 위한 '올인원 그로스(growth)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커머스 사이트를 정

교하게 진단 및 분석해 고객 행동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자동화를 실현한 솔루션으로, 데이터 수집·처리·진단부터 마케팅 액션 및 개선에 이르는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 2020년 솔루션 런칭 후 1년 동안 데이터라이즈는 별도 마케팅 없이 고객 수를 20배 확장했고 재구매율은 98%에 달한다.

데이터라이즈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

넷마블, 아이템게임즈 인수 공식화

P2E, NFT 시장 공략 속도

넷마블은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가 블록체인의 기반 전문 게임사 아이템게임즈 인수를 공식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넷마블에프앤씨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개발 중인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글로벌 P2E(Play to Earn),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2018년 설립된 아이템게임즈는 모바일 게임에 P2E 시스템을 단기간에 적용하는 미들웨어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NFT 마켓플레이스 구축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inance Smart Chain) 상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추후 넷마블에프앤씨가 구축하고 있는 메타노믹스 생태계에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쌍용정보통신 공공 클라우드 전환 3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차 이어 3차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정부가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을 서두르고 있어 쌍용정보통신의 클라우드 사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쌍용정보통신은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공공 클라우드 전환 1·2·3차 사업에서 1차에 이어 3차까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은 공공클라우드 전환 사업 1라운드를 수주해 2025년까지 확대 진행 예정인 공공클라우드 전환구축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은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네이버클라우드, NHN, KT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각 기관에 제

공한다.

쌍용정보통신 관계자는 "최근 172억 원 규모의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에 이어, 112억 규모의 EBS 패밀리아이 트 구축계약을 수주하는 등 클라우드 사업이 순항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업으로 확고한 위치를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브이씨엔씨

운수법인 택시면허 양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 브이씨엔씨가 법인택시 운수법인의 택시 면허를 양수한다.

타다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법인 운수사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현재

베타 서비스 중인 '타다 넥스트'의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 마련하기 위해 이번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타다는 이번 계약으로 타다는 약 80대 운영 규모의 택시 운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채윤정 기자